

2014. 5. 19. 월 날씨: 맑음 ☀

제목: 대학진로상담

고1부터 생각해온 입사가 벌써 다가왔다. 고3이 되니깐 점점 현안을
냉정하게 보게되는 것 같다. 내가 무던 막대한 진로가 점점 복잡해지고
알게되는 것도 많고 냉정한 현실에 우울해하는 것도 있다. 한달 전부터
자기가 가고 싶은 갈수 있는 대학은 성적과 함께 같이 미대원장샘이
랑 대학진로 상담을 했다. 아침부터 내내 어떤안을 하든지 두렵기도 하고
변화 상담을 하긴 싶었다. 직접 상담은하니 역시나 냉정하게 말씀해 주
셨다. 내가 가고 싶었던 학원도 골랐으면 가고 싶은 아가 바뀌었고 내가
그리고 싶었던 그림방향도 바뀌었고 너무나 바리게 많아서 혼란스럽고 내가
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든다.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해온
내꿈이 무너지는 기분과 더불어 다른 꿈이 생기기에 대한 신념도 느꼈다.
디자인은 너무나 광범위한 학과가 많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.
그리고 대학을 넘어서 취업, 학점까지 정한 우선순위로 다가왔다.
내면엔 내가 어떤인생원지도 궁금하고 어떤일은 한지도 궁금하긴 싶어졌다.
꿈에도 하고 싶은 무대디자인도 하고 싶은 환경디자인, 시각디자인 다하고 싶
어졌다. 그래서 은둔의 마음이 무겁고 복잡한 것 같다.